

'진도홍주' '금상' 수상 벨기에 국제 주류품평회

세계 3대 품평회 품질·맛 세계적으로 입증



전통 그대로의 곡주 맛을 살린 진도 명품홍주가 한국의 전통주로서 우수한 품질과 풍미를 인정받아 2019 벨기에 국제주류품평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9일 진도 대대로영농조합법인(대표 김애란)에 따르면 '진도홍주'가 세계 유명 주류품평회인 '2019 벨기에 몽드셀렉션'에 참가해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금상을 수상했다.

대대로영농조합법인인 한국과 일본의 주류 전문가가 추진한 홍주의 첨단 주조기법 연구용역 결과 재래식 비법을 접목해 세계적 명주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진도 홍주를 다양하게 상품화했다.

2010년 일본 수출을 시작한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상을 휩쓸고, 2015년 벨기에 몽드셀렉션에서 금상,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주류 품평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 품질과 맛을 입증했다.

벨기에 몽드셀렉션은 영국 런던의 국제주류품평회,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국제주류품평회와 함께 세계 3대 주류품평회로 손꼽힌다.

벨기에 국제주류품평회는 매년 100여명의 주류전문가들이 제품의 맛과 향을 포함한 품질을 분석해 60점 이상은 동상, 70점은 은상, 80점은 금상 그리고 90점 이상은 대상을 수여한다.

진도홍주는 고려말기에 처음 빚기 시작한 이후 조선시대에 최고의 술로 1천200년의 역사를 가진 민속주다.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농산물가공지원담당 관계자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우수한 품질과 풍미를 가진 고품질의 진도홍주를 생산하고 다양한 판매처를 확보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전통주로 거듭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영암군, 안전 달걀 공급 위한 산란계 농가 점검

영암군은 닭 잔디기가 많아지는 여름철 항생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 공급을 위해 관내 산란계 농가 위생 지도·점검에 나섰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관내 산란계 농가를 방문하여,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수칙, 닭 잔디기 구제 방법 및 2020년 4월 25일부터 의무 시행할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지도·홍보하였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으로는 닭 잔디기 구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 성분 중 동물용의약품 사용 기준에 부적합 약품 사용 여부, 닭 잔디기 방제 소독·약제 사용방법을 지도하고, 가정용 달걀의 경우 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거쳐 출하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를 홍보하였다.

군 관계자는 "영암군은 지속적으로 산란계 농가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등을 통해 계란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강진군 '지방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 선정

강진군이 지난 5일 행안부 주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지방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지방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는 시도 15곳, 시군구 208곳 등 전국 22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재원 규모를 기준으로 14개 그룹의 유사한 동종단체별로 나눠 평가를 진행한다. 3개 분야 8개 지표를 중심으로 추경 시기, 추경 규모, 일자리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광역 8곳, 기초 54곳을 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했다.

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광역 2억 원, 기초는 1억 원의 국비를 재정인센티브로 교부한다.

강진군은 민선7기 이승욱 군수 취임 이후 일자리창출과를 만들고 군정의 최우선 역점 사업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두는 등 국정 기조에 맞춰 선제적 시책을 추진해 나갔다.

특히 강진산단 분양 100% 완료와 동시에 일자리 창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월 추경예산을 적극 편성하였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이 차차 결과로 나오고 있다.

지난해 강진산단 분양률은 16.4%에 불과해 지역의 고민거리 중 하나였으나 올해 6월에 100% 분양이 완료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군민의 취업 연계를 위한 1:1 상담 등 다양한 시책의 추진으로 군은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승욱 군수는 "기업 유치와 체류형 관광산업을 통한 군민의 소득 증대가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해남군, 땅끝마을 울트라마라톤 출발점 표시석 제막



해남군 땅끝마을에 우리나라 울트라마라톤 출발점을 알리는 표시석이 세워졌다.

해남군은 6일 땅끝공원에서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김순임 회장 등 연맹관계자 및 마라톤 동호인, 참가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트라마라톤 출발점 표시석 제막식을 가졌다.

표지석은 해남군과 대한울트라마라톤 연맹에서 한반도의 시작 땅끝해남에서 시작되는 국토의 종단 마라톤 출발점을 알리기 위해 세웠고, 건립을 기념해 대한민국 종단 622km 울트라마라톤대회도 7일부터 시작했다.

표지석에는 '한반도의 시작 땅끝해남 그 출발점에 서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겨져 국토순례의 첫 출발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해남 땅끝마을의 상징성을 나타내고, 앞으로 마라톤 등 각종 대회의 시작점으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제막기념 대회는 7일 오전 6시부터 땅끝관광대 기념탑에서 출발 18시간을 달리는 100km대회가 나주시 봉황면까지 열린 가운데, 전국종단 622km 대회가 이어져 총합 150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려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출입신고소에 도착할 예정이다.

무안군, 전국내셔널바둑리그 및 전남 동호인 대회 개최

오는 13일부터 2일간

무안군이 후원하고 전남도 바둑협회가 주최·주관하는 '2019 전국내셔널바둑리그 및 전남 동호인 대회'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무안군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전문선수 및 동호인 500여명이 참가하며, 전문선수는 리그전을 치르며, 동호인은 조별 예

선리그를 치른 후 결선 토너먼트를 거쳐 종합 결승전을 갖는다.

이번 대회는 무안스포츠타크 실내체육관에서 13일 오후 2시 전국내셔널바둑리그 및 전남 동호인 대회의 열전에 들어간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선수, 임원, 관람객 등 700여명이 무안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무안군에서는 3월에 개최된 전국핸드볼 대회를 시작으로 전국당구대회를 개최했으며, 바둑대회 개최 후 4개 종목(배구, 핸드볼(대학), 레슬링, 검도의 전국단위 체육대회도 연달아 개최될 예정이어서 지역상권 활력이 크게 기대된다.

무안=이기성 기자



'완도 신지명사심리해수욕장' 개장

국내 최초 '블루플래그' 인증

남해안 최고의 하계 휴양지인 완도 신지명사심리 해수욕장이 8일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

신지명사심리 해수욕장은 깨끗한 바다와 고운 모래, 수려한 경관으로 이름나 있으며, 공기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산소음이온이 대도시보다 50배에 이를 정도로 풍부해 여름휴가를 건강하게 나가기에 제격인 곳이다.

특히 지난 4월, 우리나라 최초로 신지명사심리해수욕장이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았는데 블루플래그(Blue Flag)는 덴마크에 위치한 국제단체인 환경교육재단(FEE)에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수욕장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이날 개장식은 관내 통가터 공연 팀

의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개장 선연과 블루플래그 깃발 게양식, 블루 완도 퍼포먼스 축하 공연이 진행됐으며, 환경교육재단(FEE)의 CEO가 개장식에 직접 참석, 블루플래그 깃발 게양식을 함께 진행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개장 기간 동안 완도군과 해양구조대, 해병전우회에서는 장보고 인명구조선과 안전요원을 투입, 민·관이 협력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신우철 군수는 "올 여름,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해양치유산업의 1번지 완도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시길 바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 때문에 폐장할 때까지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목포시, 음식점 친절·위생서비스 향상총력

목포는 사시사철 입이 즐거운 맛의 도시다.

목포시가 맛의 도시 목포에 걸맞은 친절하고 위생적인 음식점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 해 연초부터 특별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시민과 관광객 방문이 많은 북항회센터와 목포역 일원을 위주로 주중·주말을 가리지 않고 매일 불법행위 단속 및 위생상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 상인회와 수시로 간담회를 실시해 자성의지를 다지고 소통하면서 친절도 향상과 바가지·호객행위 근절에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영업주 위생교육을 통해 과거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시 바가지와 불친절로 많은 관광객에게 실망을 줬던 사례를 연극공연으로 시연하고, 불친절 상황극 거리순회공연 등을 통해 친절의 중요성과 영업주들의 친절마인드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

시는 다양한 노력의 결과 목포 음식점의 친절위생 서비스 수준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고베를 늦추지 않고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